

지금 **Hot한 종목**을 Kodex로 만나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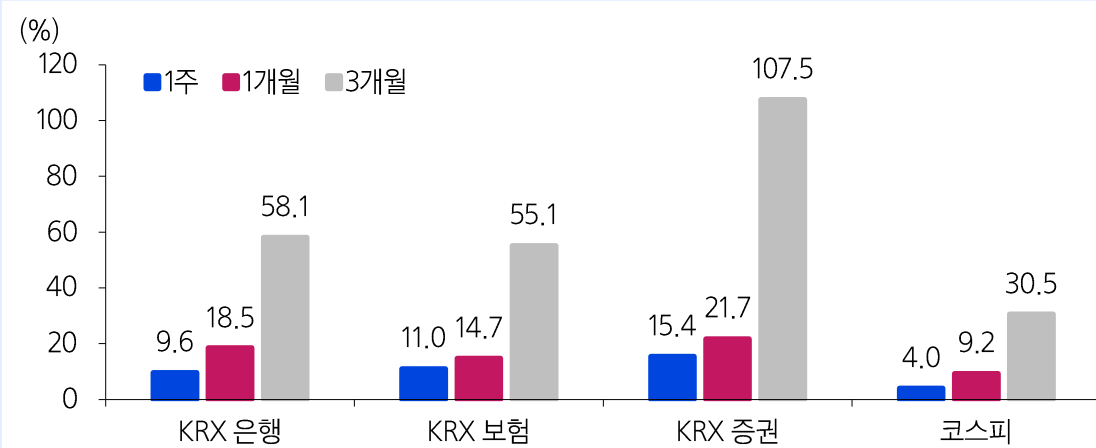
삼성 Kodex ETFNow

Vol 16. 2025.07.16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

01 | 이번 주 HOT 종목 : 삼성화재

- 신정부 출범 이후 상법개정안, 자사주 의무소각,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주주환원 직결 정책 多
- 주주환원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증권, 은행, 보험 업종은 코스피를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수익률 기록
- 연초이후, 증권(+107.5%)>은행(+58.1%)>보험(+55.1%) 순으로 높은 수익률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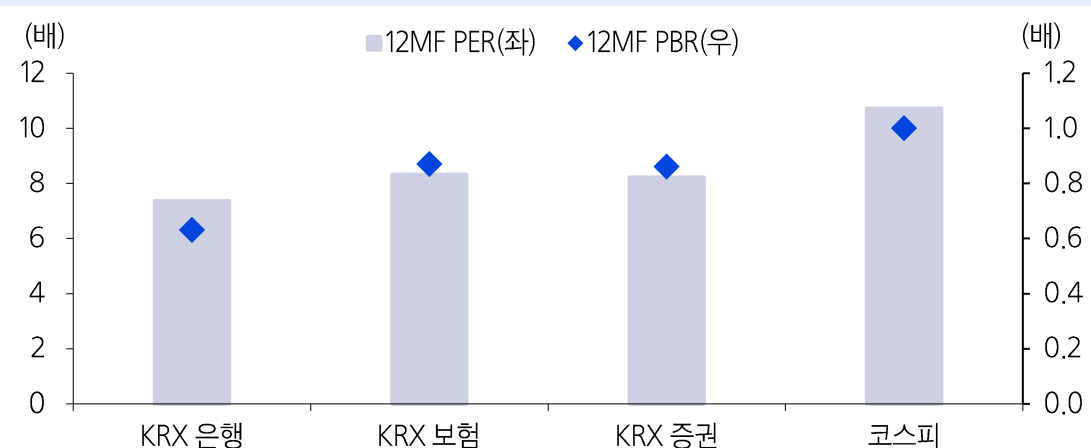
[그림 1] KRX 은행, 보험, 증권: 최근 3개월 수익률



※ 주: 2025년 7월 11일 기준. ※ 자료: Quantiwise, 삼성자산운용

- 올해 코스피가 3,200p(7/14, 3,202p)를 돌파하면서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BR은 1배 수준에 도달
- 은행, 보험, 증권 업종의 12개월 선행 PBR은 1배를 하회해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 높음
- 주주환원 강화 정책 뿐 아니라 보험 업종 규제완화 조치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나타날 수 있음

[그림 2] KRX 은행, 보험, 증권: 12개월 선행 PER 및 P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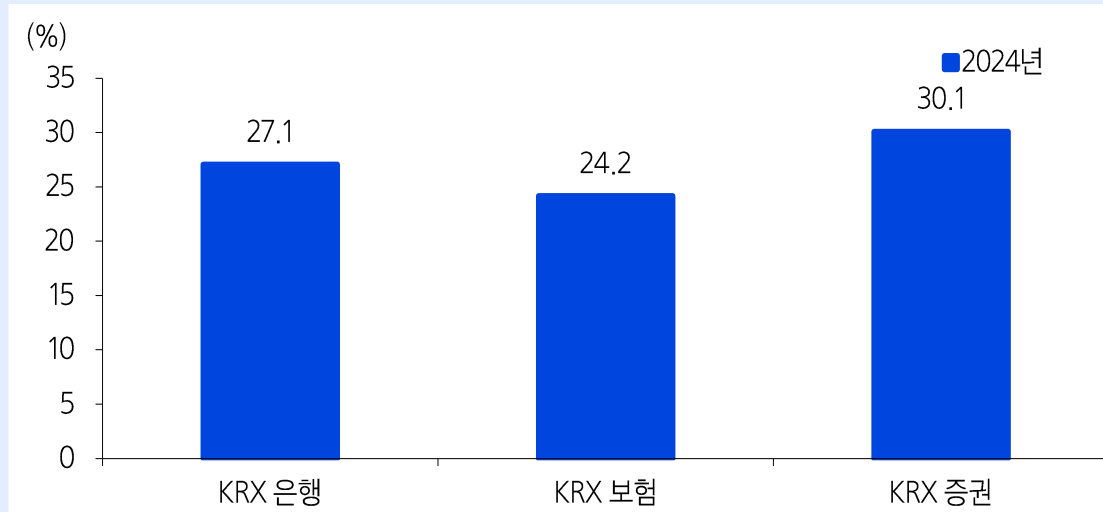


※ 주: 2025년 7월 14일 기준. ※ 자료: Quantiwise, 삼성자산운용

02 | 주주환원확대 수혜 업종 내 (증권, 은행, 보험) 순환매 장세 기대

- 여당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배당성향이 높은 업종 증권, 은행, 보험 업종이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
- 2024년 배당성향을 감안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는 증권 → 은행 → 보험 순으로 받을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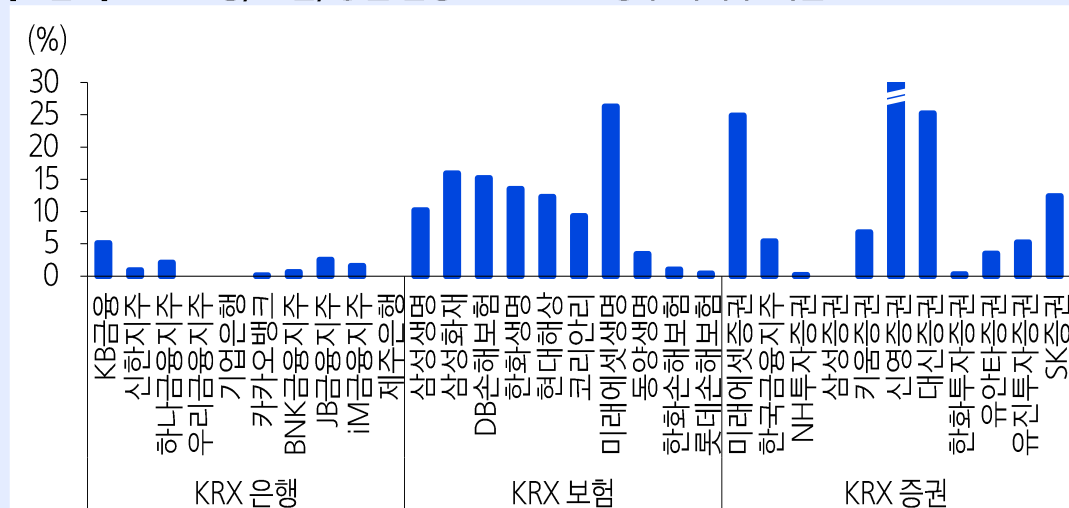
[그림 3] 업종별 2024년 배당성향



※ 자료 : Quantiwise, 삼성자산운용

- 보험사들의 보통주 자사주 비율은 은행과 증권 업종보다 높아 자사주 소각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보험 업종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
- 주주환원확대 기대감이 유효한 업종 내(증권, 은행, 보험) 순환매 장세를 염두해둘 필요

[그림 4] KRX 은행, 보험, 증권 업종: 2024년 보통주 자사주 비율



※ 자료 : Quantiwise, 삼성자산운용

03| 삼성화재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Kodex ETF는?

140700 Kodex 보험	21.0%	상법개정 통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신정부 정책수혜를 등에 업고 국내 대표 보험주에 투자하는 ETF
102780 Kodex 삼성그룹	10.5%	삼성그룹 내 시가총액 1조원 이상 핵심 계열사 투자를 통해 각 섹터 리더기업들에 손쉽게 투자하는 ETF
102970 Kodex KTOP30	6.8%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 & 코스닥 그 중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30개 대표종목에 투자하는 ETF

※ 자료: 2025년 7월 15일 기준, 삼성자산운용

04| Kodex 보험(140700) 알아보기!

✓ Kodex 보험(140700) 투자포인트

- ✓ '24년 '코리아밸류업 프로그램' 이후 고배당·저PBR 주목 받으며 부각된 보험주
- ✓ '25.5월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 방향에 따른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금융주
- ✓ 저PER, 저PBR, 고배당 : 저평가된 정책수혜 대표주자, 보험주



📍 삼성 Kodex ETF
홈페이지 바로가기

★ 탐픽 선정 이유

한국 증시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에 금융주, 특히 은행, 증권주 중심으로 상승. 보험주에는 신정부에서 위시하여 진행중인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에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다수 포진. 단기적으로 은행, 증권주들의 주가상승이 가팔랐던 가운데, 여전히 저PBR 매력과 정책기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Kodex 보험

📊 Kodex 보험(140700) 보유 종목 TOP5

구분	종목명	기업설명	보유비중
1	삼성생명 (032830)	안정적 수익과 높은 배당으로 주주환원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대표 생명사	23.2%
2	삼성화재 (000810)	자사주 비율이 높아 주주환원 확대를 목표하는 신정부 정책 수혜 기대	21.0%
3	DB손해보험 (005830)	배당 확대 기조에 따른 정책 수혜 기대로 주가 리레이팅 기대	19.9%
4	현대해상 (001450)	자사주 소각과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목받는 손해보험사	11.2%
5	코리안리 (003690)	큰 폭의 배당 증가와 함께 정책 수혜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재보험사	9.5%

※ 자료: 2025년 7월 15일 기준, 삼성자산운용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간번호	발간일	제목
1	2025-03-12	AI발 고성장이 기대되는 중국 테크주에 올라타자: 알리바바(Alibaba)
2	2025-03-19	AI산업 확장으로 고성능 칩 수요는 지속된다: 엔비디아(Nvidia)
3	2025-03-26	메모리 업황 개선 기대감 고조: 삼성전자(005930)
4	2025-04-02	떨어질 때 다시 보자: 테슬라(Tesla)
5	2025-04-09	변동성 장세를 이겨낼 힘: 미국 배당주(441640)
6	2025-04-16	관세 타격은 적고, 성장성을 겸비한: 팔란티어(Palantir)
7	2025-04-23	2025년은 AI 에이전트의 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8	2025-04-30	AI 시대에 지속될 전력난의 수혜주: GE 버노바(GE Vernova)
9	2025-05-14	미국 대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테슬라(Tesla)
10	2025-05-21	중국 대표 휴머노이드 로봇 상장사: 유비테크(UBTECH)
11	2025-05-28	미 원전 확대 기조로 부각된 전력 부족 이슈: GE버노바(GE Vernova)
12	2025-06-11	급등한 코스피 대처법: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498400)
13	2025-06-18	에너지 전환의 진정한 수혜주: 두산에너지빌리티(034020)
14	2025-07-02	주주환원 강화로 리레이팅이 기대되는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086790)
15	2025-07-09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개막: 고배당주(279530)
16	2025-07-16	주주환원 강화 수혜의 다음 타자: 삼성화재(00810)

- * 합성총보수·비용 및 총보수는 기준가격에 따라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및 ETF 거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Kodex 보험 : 합성총보수 연 0.4649%, FY2024 기준 증권거래비용 0.0134% 발생, 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 Kodex 삼성그룹 : 합성총보수 연 0.2918%, FY2024 기준 증권거래비용 0.0157% 발생,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 * Kodex KTOP30: 합성총보수 연 0.2862%, FY2024 기준 증권거래비용 0.0071% 발생,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와 관련한 저작권은 삼성자산운용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본 자료를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은 개별 투자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본 자료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며, 당사는 투자자의 판단과 결정,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료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 전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및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연금 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는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며,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금 분배 방식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